한미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2017년 3월 15일

LG경제연구원

목차

Ⅰ. 한미 FTA와 양국 경제 관계

Ⅱ. 향후 미국의 무역·투자 정책

Ⅲ. 한국의 과제와 대응

한미 양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해 관계가 일치한 가운데 한국은 대미 수출 둔화 타개, 미국은 동아시아 영향력 회복을 위해 한미 FTA 적극 추진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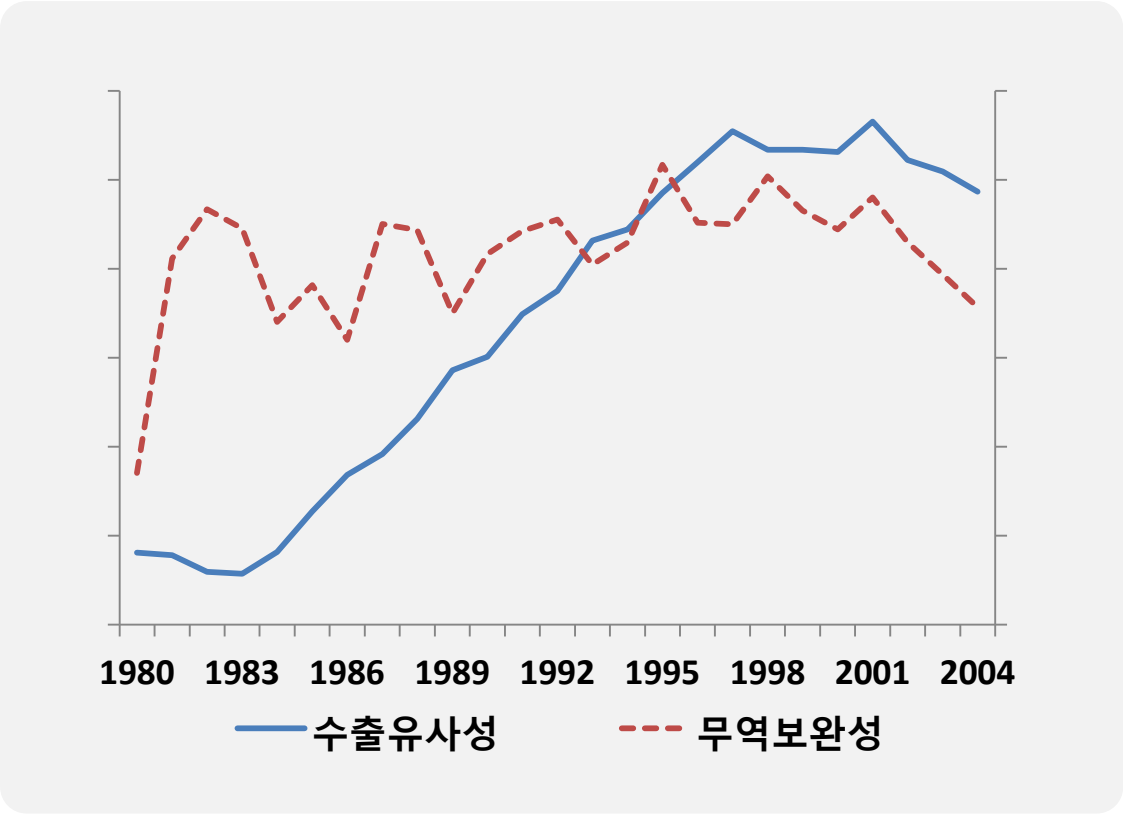
- 칠레, 싱가포르 등과의 경험을 통해 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 준비 완료
- 일본, 중국 등과의 FTA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 모색 필요
  - 아시아 최초로 미국과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통상 주도권 획득 계기 마련
- 借刀之計 : FTA를 계기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 해소
  - 서비스업 분야가 강한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개방과 경쟁을 통해 국내 서비스 부문의 생산성 제고 가능 → 이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활용
- 국내 정치 상황 타개를 위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존재
  - 대미 관계에 대한 국내외 우려 불식 위해 정치적 / 외교적 한미 동맹 관계 강화 추진

미국

- WTO/DDA 협상 지연으로 자유무역을 확산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대안 필요
-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역학 관계 재편을 견제하기 위한 동아시아 내 교두보 강화 노력 (Pivot to Asia)
- 무역수지 적자 확대, 잇따른 FTA 협상 무산, 중동 문제 악화 등 외교·통상 관련 부담 증가
  - 동아시아 지역과의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마리 마련
  -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안보 동맹 강화 및 외교 기반 확충 필요성 제기

한국경제 고도화로 양국 간 무역보완성이 줄어들면서 경쟁을 통한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필요성 제기… 산업 내 무역 등 생산분업과 GVC 확산 효과 기대

한미 간 교역구조 변화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미 양국의 수출 구조가 유사해졌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보완성도 감소

☞ 보완적 관계에서 경쟁적 관계로 전환

- 일반적인 교역 관계에서는 수출 구조가 유사해지면 교역 감소… 그러나, FTA 회원국 간에는 오히려 경쟁 통한 양국 간 분업 발생

☞ 산업 내 무역 확대

한국의 대미 수출은 주력 제품 의존도가 높고 품목 구성 변화 적은 편… 10대 품목이 전체 대미 수출의 절반 차지하고 그 중 6개 품목은 계속 포함

한국의 대미 10대 수출 품목 변화

2005년				2011년				2016년			
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코드	품목명	수출액	비중
전체		41,343		전체		56,208		전체		66,462	
870323	중형 자동차	5,836	14.1%	851712	휴대용 전화기	8,090	14.4%	870323	중형 자동차	10,649	16.0%
852520	전화기	4,920	11.9%	870323	중형 자동차	7,342	13.1%	851712	휴대용 전화기	6,467	9.7%
870324	대형 자동차	2,727	6.6%	870899	기타 자동차용 부품	2,692	4.8%	870899	기타 자동차용 부품	2,974	4.5%
271019	기타 석유제품	2,023	4.9%	271019	기타 석유제품	2,386	4.2%	870324	대형 자동차	2,556	3.8%
854221	반도체 부품/부분품	1,941	4.7%	847330	컴퓨터 부품	1,421	2.5%	271019	기타 석유제품	2,346	3.5%
847330	컴퓨터 부품	1,568	3.8%	870324	대형 자동차	1,288	2.3%	870322	소형 자동차	2,276	3.4%
870899	기타 자동차용 부품	1,327	3.2%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1,146	2.0%	847330	컴퓨터 부품	1,411	2.1%
847160	컴퓨터 입출력 장치	561	1.4%	841810	냉장고 및 냉동고	985	1.8%	854140	발광다이오드 등	1,327	2.0%
852812	컬러 방송통신 기기	524	1.3%	290220	벤젠	741	1.3%	401110	승용차용 타이어	1,078	1.6%
852990	방송장비 및 부분품	481	1.2%	890590	기타 특수 선박	693	1.2%	841810	냉장고 및 냉동고	1,069	1.6%
누적			53.0%	누적			47.7%	누적			48.4%

HS Code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http://stat.kita.net)

반면, 미국의 대한 수출은 주력 제품 의존도가 낮고 품목 구성도 지속적으로 변화… 10대 품목이 1/3에도 못 미치고, 계속 포함된 품목은 2개에 불과

한국의 대미 10대 수입 품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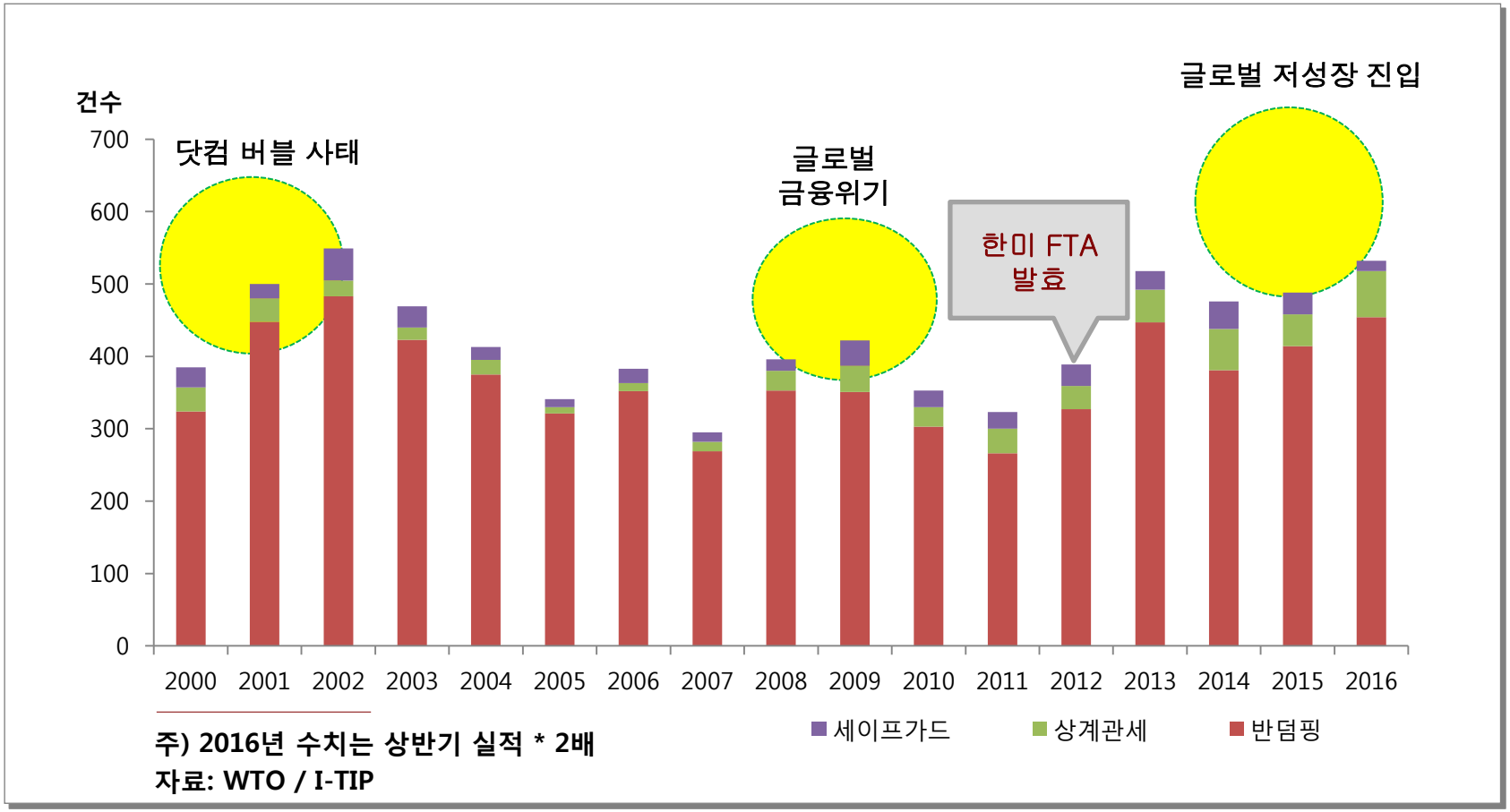
2005년				2011년				2016년			
코드	품목명	수입액	비중	코드	품목명	수입액	비중	코드	품목명	수입액	비중
전체		30,586		전체		44,569		전체		43,216	
854221	반도체 부품/부분품	4,845	15.8%	100590	기타 옥수수 류	1,934	4.3%	854231	컴퓨터 프로세서 등	3,242	7.5%
847989	기타 가정용 기계류	1,129	3.7%	854231	컴퓨터 프로세서 등	1,919	4.3%	848620	반도체 장비	1,656	3.8%
880240	소형 항공기(15t 미만)	841	2.7%	848620	반도체 장비	1,581	3.5%	880330	항공기 부분품	1,364	3.2%
845691	반도체 재료 등	543	1.8%	854232	메모리	1,550	3.5%	880240	소형 항공기(15t 미만)	1,238	2.9%
854229	기타반도체 부품 등	474	1.5%	880240	소형 항공기(15t 미만)	1,431	3.2%	271112	프로판 (액화한것)	912	2.1%
720449	기타 고철류	462	1.5%	720449	기타 고철류	1,364	3.1%	100590	기타 옥수수 류	829	1.9%
410150	전신원피	360	1.2%	270112	유연탄	1,290	2.9%	870323	중형 자동차	712	1.6%
900120	편광재료제의 판	352	1.2%	880330	항공기 부분품	594	1.3%	848690	부분품과 부속품	658	1.5%
851750	기타 통신용 기기	346	1.1%	270730	크실올	593	1.3%	210690	기타 음료 원료	655	1.5%
880330	항공기 부분품	326	1.1%	100190	기타 밀 류	506	1.1%	300490	기타 의약품	500	1.2%
누적			31.6%	누적			28.6%	누적			27.2%

HS Code 6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DB (http://stat.kita.net)

미국 내 반세계화 움직임 확산되면서 무역구제 관련 사전 협의, 전문직 비자 확대, 정부 조달 참여 등 후속 과제 추진에 차질… 한미 FTA 효과 무색

경기 변동과 수입 규제 조치 추이



주) 2016년 수치는 상반기 실적 * 2배
자료: WTO / I-TIP

미국경제의 산업별 비중 변화… 제조업 위축 심화

2005년			2016년			증감 (%p)
산업	총생산액	산업별 비중	산업	총생산액	산업별 비중	
제조업	1,740,784	13.09%	부동산 및 임대업	2,469,491	13.31%	0.78
정부 부문	1,670,892	12.56%	정부 부문	2,282,267	12.30%	-0.26
부동산 및 임대업	1,666,954	12.53%	제조업	2,180,950	11.75%	-1.33
금융 및 보험	1,025,289	7.71%	보건 및 사회서비스	1,378,104	7.43%	1.08
유통업	865,356	6.51%	금융 및 보험	1,374,827	7.41%	-0.30
전문기술직	861,270	6.47%	전문기술직	1,363,606	7.35%	0.87
보건 및 사회서비스	844,894	6.35%	도매업	1,101,501	5.94%	0.10
도매업	775,905	5.83%	유통업	1,089,213	5.87%	-0.64
건설업	673,029	5.06%	정보산업	892,444	4.81%	0.02
정보산업	637,523	4.79%	건설업	784,865	4.23%	-0.83
교통 및 창고	392,827	2.95%	관리 및 청소	588,269	3.17%	0.25
관리 및 청소	388,762	2.92%	교통 및 창고	565,924	3.05%	0.10
숙박 및 식음료	365,124	2.74%	숙박 및 식음료	555,301	2.99%	0.25
기타 비 정부 서비스	316,625	2.38%	기타 비 정부 서비스	422,308	2.28%	-0.10
광업	263,751	1.98%	기업경영	372,876	2.01%	0.32
기업경영	224,944	1.69%	전기수도가스 등	293,901	1.58%	-0.02
전기수도가스 등	213,742	1.61%	광업	271,615	1.46%	-0.52
농축수산업	126,234	0.95%	교육서비스	207,772	1.12%	0.20
예술 및 레저	125,032	0.94%	예술 및 레저	200,065	1.08%	0.14
교육서비스	122,907	0.92%	농축수산업	160,066	0.86%	-0.09
합계	13,301,844		합계	18,555,365		

* 자료: BEA, GDP by State / 단위: 백만 달러

공화당 지지율 급등 지역의 산업별 비중도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

2005년			2016년			증감 (%p)
산업	총생산액	산업별 비중	산업	총생산액	산업별 비중	
제조업	404,084	14.03%	부동산 및 임대업	488,486	12.76%	0.27
부동산 및 임대업	359,502	12.49%	제조업	481,233	12.57%	-1.47
정부 부문	329,190	11.43%	정부 부문	425,271	11.11%	-0.33
보건 및 사회서비스	206,124	7.16%	보건 및 사회서비스	319,397	8.34%	1.18
금융 및 보험	204,986	7.12%	금융 및 보험	277,604	7.25%	0.13
유통업	197,272	6.85%	전문기술직	250,206	6.53%	0.68
도매업	182,609	6.34%	도매업	245,102	6.40%	0.06
전문기술직	168,666	5.86%	유통업	238,281	6.22%	-0.63
건설업	155,216	5.39%	건설업	166,329	4.34%	-1.05
정보산업	133,753	4.65%	정보산업	164,956	4.31%	-0.34
관리 및 청소	93,349	3.24%	관리 및 청소	129,305	3.38%	0.13
교통 및 창고	89,498	3.11%	교통 및 창고	125,396	3.27%	0.17
숙박 및 식음료	77,644	2.70%	숙박 및 식음료	114,541	2.99%	0.29
기타 비 정부 서비스	70,500	2.45%	기업경영	94,331	2.46%	0.45
기업경영	57,938	2.01%	기타 비 정부 서비스	90,463	2.36%	-0.09
전기수도가스 등	49,852	1.73%	전기수도가스 등	67,278	1.76%	0.03
교육서비스	27,029	0.94%	예술 및 레저	43,962	1.15%	0.25
예술 및 레저	25,923	0.90%	교육서비스	43,153	1.13%	0.19
농축수산업	24,557	0.85%	광업	32,777	0.86%	0.10
광업	21,738	0.75%	농축수산업	31,224	0.82%	-0.04
합계	2,879,430	21.65%	합계	3,829,295	20.64%	-1.01

* 플로리다, 조지아, 아이오와, 미시건, 위스콘신, 미시건, 펜실바니아, 와이오밍 / 자료: BEA, GDP by State / 단위: 백만 달러

<참고>양당 우세 지역의 산업별 총생산 비중(2008년)

공화당 우세 지역		민주당 우세 지역		경합 지역	
산업	총생산 비중	산업	총생산 비중	산업	총생산 비중
제조업	11.58%	부동산 및 임대	14.16%	제조업	12.85%
정부	11.41%	정부	10.46%	부동산 및 임대	11.16%
부동산 및 임대	10.46%	제조업	9.38%	정부	9.67%
유통	6.08%	금융 및 보험	8.56%	금융 및 보험	7.01%
보건 및 사회서비스	5.90%	전문기술직	7.28%	보건 및 사회서비스	6.49%
전문기술직	5.89%	보건 및 사회서비스	6.63%	전문기술직	6.03%
금융 및 보험	5.83%	유통	5.91%	유통	5.89%
도매업	5.37%	도매업	5.35%	도매업	5.76%
건설업	4.79%	정보산업	5.05%	건설업	4.41%
광업	3.64%	건설업	4.13%	정보산업	3.51%
정보산업	3.35%	행정 및 청소	2.59%	교통 및 창고	2.82%
행정 및 청소	2.88%	숙박 및 식음료	2.36%	행정 및 청소	2.73%
교통 및 창고	2.77%	교통 및 창고	2.04%	숙박 및 식음료	2.24%
숙박 및 식음료	2.59%	기업경영	1.77%	유틸리티	1.77%
유틸리티	2.06%	유틸리티	1.58%	기업경영	1.65%
기업경영	1.55%	교육서비스	1.05%	교육서비스	0.92%
농축수산업	0.83%	농축수산업	1.02%	광업	0.82%
예술 및 레저	0.79%	예술 및 레저	0.93%	예술 및 레저	0.80%
교육서비스	0.64%	광업	0.37%	농축수산업	0.62%
시장개방 선호 업종	46.70%	시장개방 선호 업종	57.70%	시장개방 선호 업종	49.83%
중립적 업종	41.73%	중립적 업종	32.92%	중립적 업종	37.32%

* 공화당 우세 지역 23개 주, 민주당 우세 지역 18개 주, 양당 경합 지역 10개 주 / 자료: BEA, GDP by State

제조업 몰락, 소득 불평등 심화, 일자리 감소 등의 장기화가 미국 유권자들의 분노를 촉발하면서 기존 대외 경제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로 이어져

기존 정책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요구 표출

- **자동차, 철강 산업 등이 발달해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기반이었던 중동부의 전통 제조업 중심 지역(Rust belt)들이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
  - 시장개방 등으로 제조업 일자리가 감소하는 가운데 기존 주력 산업 및 자원 개발에 대한 규제 강화가 이 지역 유권자들의 반발 초래

- **유권자들의 불만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어려워 당분간 자국 우선주의와 포퓰리즘에 호소하는 정책기조가 이어질 전망**
  - 상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러한 흐름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은 편… 정책 안정성에 대한 기대와 공화당의 독단적 정국 운영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

- **지난 한 세대 동안 시장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이끌어 왔던 미국이 반세계화 선봉에 나섬에 따라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위축 장기화 우려**
  - 위축되던 국제교역을 더욱 짓눌러 시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경우, 대외의존도 높고 경제 규모 작은 한국에 큰 타격 줄 수도
  - 기존 규범(normal)과 어긋나는 대외정책 남발로 주변국들과 잦은 마찰 일으킬 가능성 높아

Ⅰ. 한미 FTA와 양국 경제 관계

Ⅱ. 향후 미국의 무역·투자 정책

Ⅲ. 한국의 과제와 대응

트럼프 행정부는 줄어드는 제조업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채찍과 당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 당분간 '세계화'에 채찍이 집중될 전망

트럼프 행정부와 제조업

'좋은 일자리' 원천

- **고용 유발 효과는 서비스업이 크지만, 산업 내 저임금의 불완전 고용이 많아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에 직면… '제조업 일자리'의 중요성 부각**
  - 비교우위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선택과 집중' 원칙이 후퇴… '제조업 부활'이란 목표 위해 다소 무리한 정책도 추진할 듯
  - 국경세(Border-Adjustment Tax) 등 다양한 정책 수단들을 언급하면서 미국 및 글로벌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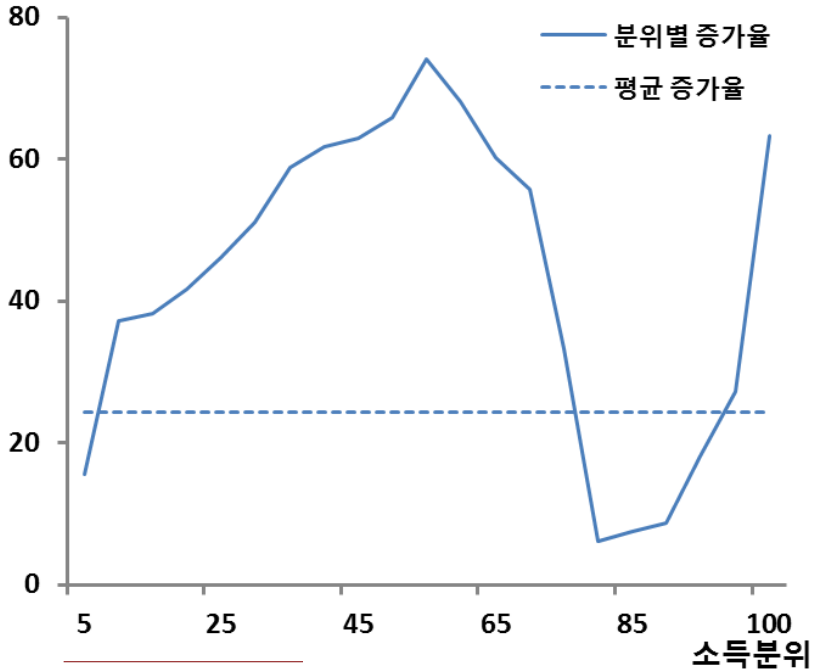
수출보다 내수에 우선

- **'제조업 부활'이 수출 경쟁력 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
  -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과 달리 수입에 의존하던 내수를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자급 기반 마련 가능

- **소득 불평등 확대 원인은 세계화 외에도 다양**
  - 컴퓨터, 정보통신 등 기술 진보가 소득 불평등의 35%를 설명하는 반면, 세계화는 15%에 불과 (Feenstra & Hanson, 1999)
- **무역자유화에 불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
  - 수혜자와 피해자 구분이 명확…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유리
  - 무역조정지원제도(TAA) 등의 활용도가 너무 낮아 유명무실화
  - 고령화, 저성장 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과제로 쉽게 용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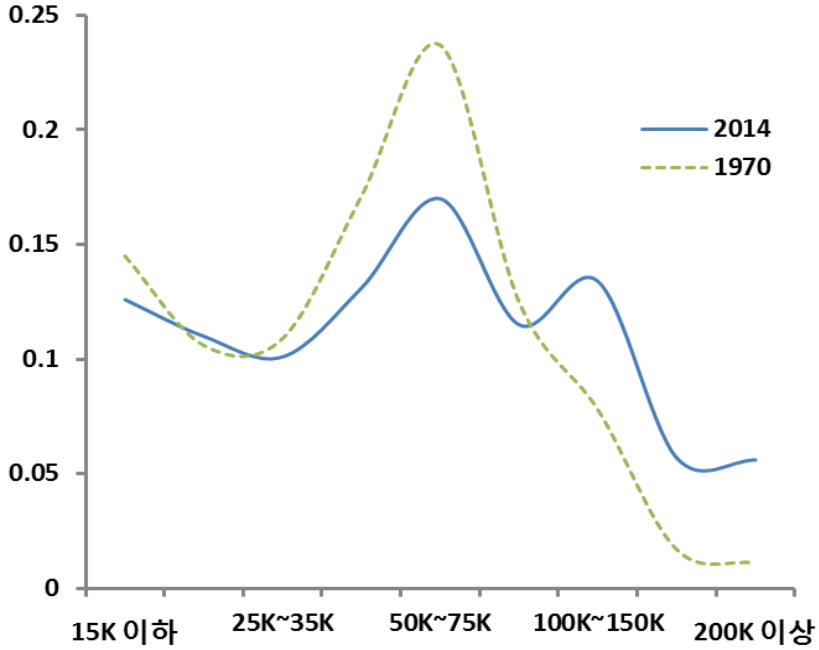
미국 등 선진국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부진으로 '자국 내 불평등'이 심화

전세계 소득분위별 소득 증가율 차이



주) 1988년부터 2008년까지
자료: Lakner C. and B. Milanovic, 20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미국 중산층이 상하 계층으로 이동



주) K=1,000U$ (2014 PPP 기준)
자료: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014, U.S. Census Bureau

‘미국 우선주의’라는 목표 명확… 기존 경제학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 많고, 이론적 정합성보다 정책 대응의 단기적 효과를 강조하는 실용주의 입장

트럼프노믹스의 특징과 배경

항목		레이거노믹스	트럼프노믹스
유사점	정책 수단	– 감세 – 규제완화 – 달러화 약세 유도 – 복지지출 삭감 – 방위비 지출 증대	
	환경	– 국제 · 통상 질서에서 미국의 입지와 영향력	
차이점	정책 수단	– 감세, 규제완화 우선 – 글로벌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무역 적자 축소 – 전통적인 공화당 정책에 충실	– 제조업 일자리 보호 우선 – 미국의 시장지위를 이용한 주변국 압박, 비용전가를 통한 무역적자 축소 – 재정확대 등 일부 정책에서 공화당의 이념과 충돌
	환경	– 높은 인구증가율 – 낮은 정부부채, 고금리 – 일본과 독일이 협조적	– 인구증가율 감소 – 높은 정부부채, 저금리 – 중국의 협조 기대 어려워
	관련 주요국	– 일본, 독일	– 중국, 멕시코

- 트럼프노믹스의 목표는 ‘미국 우선주의’로 분명한 반면,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논란 많은 편
- 공급주의 경제학 토대 위에 다양한 정책들을 혼용

☞ 전통적인 감세 및 규제완화 정책 뿐 아니라, 케인즈 식 수요 정책과 중상주의 성향의 보호무역 조치들도 다수 도입

무역 정책의 목표가 '최저가격 통한 구매력 유지'에서 '일자리와 미국경제 우선'으로 이동…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개입 필요성 강조

트럼프 행정부가 지향하는 무역 질서

양자협상 시대 회귀

- **TPP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의 통상 전략을 양자협상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천명**
  - 다자간 FTA의 정치·외교 효과 포기
  - 협상 상대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는 데 다자보다 양자협정이 낫다는 판단
  - 수출 확대보다는 수입 대체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입장

선별적 자유무역

- **자유무역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공정성(fairness) 충족한 국가들과의 자유무역만을 옹호하겠다는 입장**
  - '공정한 자유무역(fair free trade)'을 위한 파트너는 '미국의 이익' 관점에서 선별해서 판단
  - 이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TPP를 포함해 미국에게 불리한 다자무역협정 중단하고, 미국에게 유리한 양자협정 중점"

"앞으로 환율조작국에 대한 책임을 물리는 것을 포함해 우리의 자유무역 규칙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싸워나갈 것"

국내 산업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미국 기업들의 해외 이전(off-shoring)과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개입… 자원 및 부가가치 배분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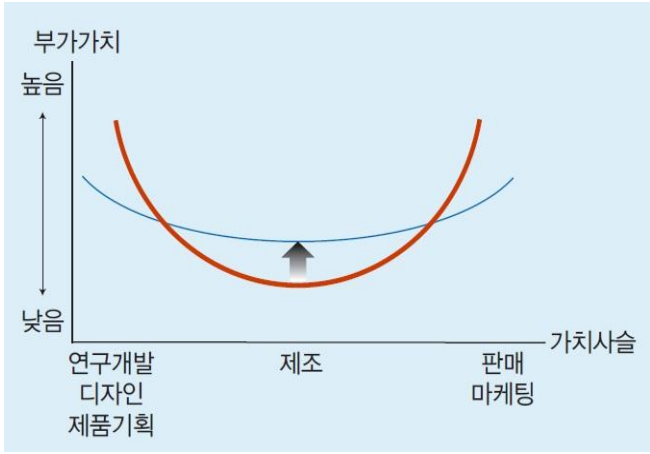
트럼프 행정부의 직접투자 정책 변화와 스마일 커브 변화

GVC 내부화

- **미국 기업들의 생산지 해외 이전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시장이 최종 종착지인 글로벌 기업들과 관련 업체들에게도 대미 투자 확대 주문**
  - 그 동안 비교우위론을 바탕으로 스마일 커브를 따라 생산지를 해외로 이전해왔던 기업들의 행태와는 반대
  - 미 제조업의 스마일 커브 변화 불가피

시장 앞세워 기업 회유

- **세계경제의 저성장과 수요 부진으로 구매력 갖춘 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힘이 더욱 커지는 추세**
  - 무역장벽 회피형 투자가 늘어나는 등 향후 해외투자 패턴에도 영향
  - 성공 가능성보다 인적자원 유출 등에 따른 성장 잠재력 훼손 우려 (ex. 혁신)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공약

집권 초기인 만큼 적극적인 추진 예상… 에너지 공약은 고수할 수 있겠지만, 무역·통상 관련 정책들은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논란 커질 듯

	공약 주요 내용	이행 가능성	향후 전개
통상	● 고율관세 부과 및 무역협정 재협상·폐기 ▶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 부과, NAFTA, 한미FTA 재협상	● 수정·완화: 중국에 고율관세 부과 시 미국 물가 상승 (+2.6%p) 등 역효과 큼. 무역질서는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님.	● WTO 규정에 위배되는 관세부과보다 비관세 장벽을 주로 활용 *"막가파식 통상정책은 없다… 45% 관세 부과도 협상 전략"* *윌버 로스(상무장관 지명자)*
	● 애플 등 해외진출 기업의 리쇼어링 촉진, 전통 제조업 부흥	● 취약한 국내 부품 및 중간재 인프라와 고임금이 걸림돌	● 전체 생산 중 일부 물량 혹은 단순 공정 중심으로 미국 생산 시작 전망… GVC 내부화 가능성이 성공의 관건
경기부양	● 인프라 투자 확대 및 감세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하)	● 인프라 투자는 공화, 민주 양당의 대선공약 ● 경제 관련 수장들을 감세에 우호적인 월가 멤버로 채워	● 단기적으로 효과 나타나겠지만, 금리 및 물가 상승으로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 ● 공화당은 국가부채 확대에, 민주당은 고소득층 감세에 대해 반대 입장 고수
에너지	● 규제완화를 통해 셰일 채굴 확대, 그린산업 보조금 축소	● 에너지부 장관과 환경청장(EPA)에 親석유업계 인물 지명	● 트럼프 임기 동안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셰일이 될 것이며 그린산업은 답보할 전망

☞ 자국우선주의 및 감세 정책 기대로 미국경제 반짝 성장 중… 부작용과 지속 가능성에 주목해야

Ⅰ. 한미 FTA와 양국 경제 관계

Ⅱ. 향후 미국의 무역·투자 정책

Ⅲ. 한국의 과제와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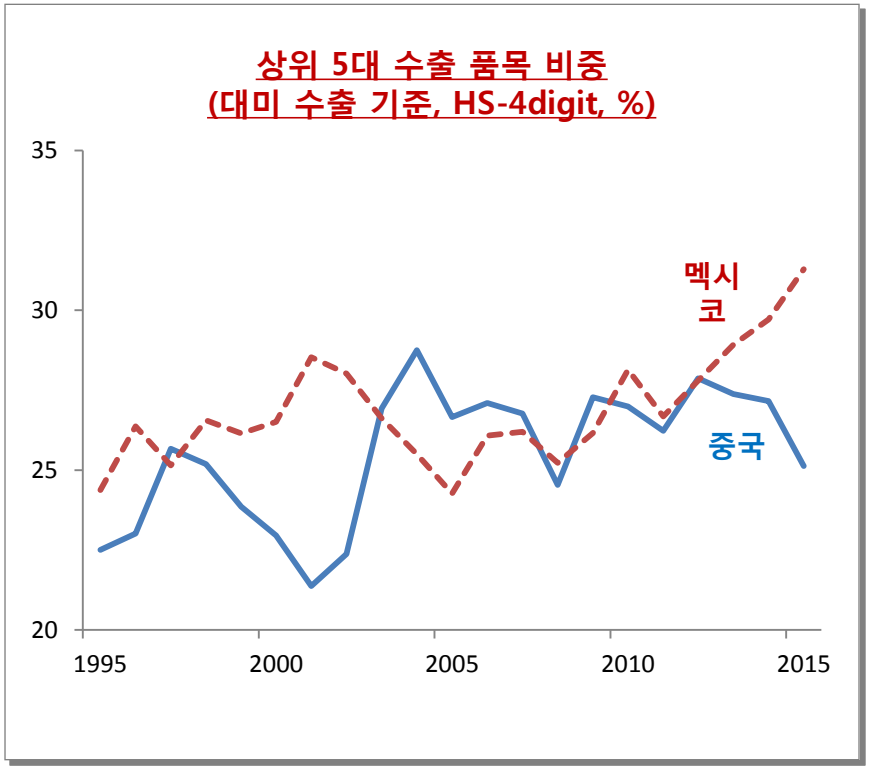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미 간 통상 환경 및 산업 협력 분야에 미칠 영향에 주목

미국 통상 당국이 생각해야 할 질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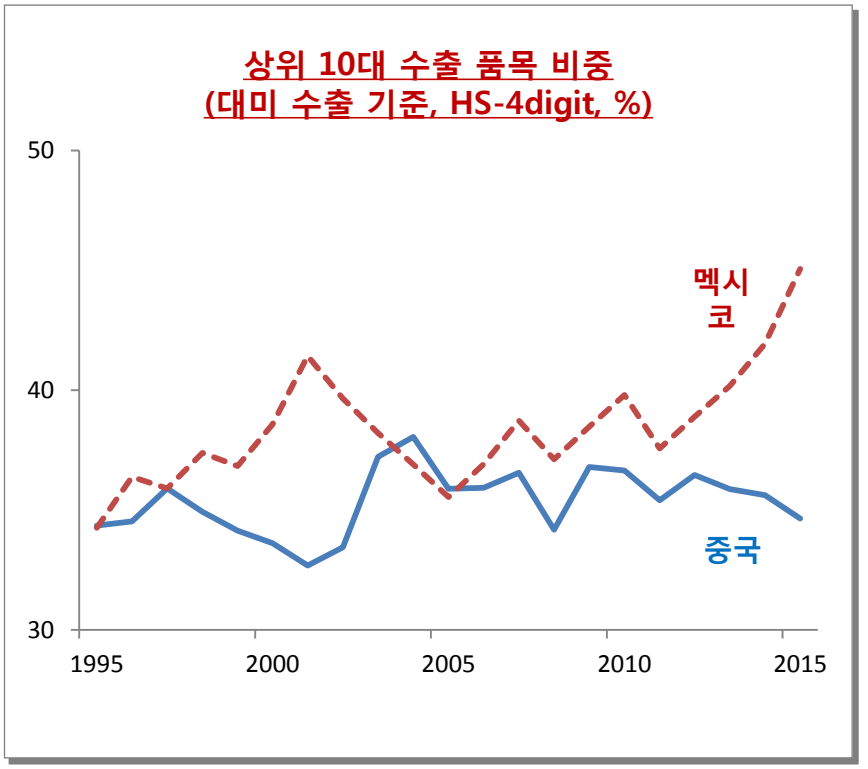
- ✓ **국제무역은 제로섬 게임인가?**
  -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투자 관련 책임자들이 자유무역의 positive-sum 효과를 계속 부인할 수는 없을 것… 무역자유화를 지속하면서 부작용 관리에 주력해야
- ✓ **양자간 무역협정 체제로 회귀할 경우 한-미 간 생산 네트워크의 미래는?**
  - 글로벌 제조업 발전 경로를 고려할 때 양자간 분업만으로는 수출경쟁력 확보 불가능…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수출 확대 통한 국제수지 개선책 마련해야
  - '4차 산업혁명' 등의 분야에서도 한국의 비교우위, 즉 세계적인 제조 경쟁력과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등을 미국의 비교우위와 결합시킴으로써 미국 제조업 부활에 기여 가능
- ✓ **현재 추진하는 무역/투자 정책들을 임기 내내 지속할 수 있을까?**
  -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할 수 있겠으나 지속 가능성은 낮은 편… 특히 해당 정책들이 성장 잠재력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이로울지도 의문
- ✓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따를 것인가?**
  - 이미 중국은 미국시장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산업 및 무역 정책 추진 중

대미 수출 집중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멕시코와 달리 중국은 다변화 위해 노력

멕시코 및 중국의 대미 수출 집중도 (원유 제외)



자료: UN Comtrade



자료: UN Comtrade

지난 20년 새 멕시코의 대미 수출 10대 품목 변화는 거의 불변… 중국과 대조적

국가	순위	1995	2005	2015
중국	1	신발류	**컴퓨터**	**컴퓨터**
	2	완구	방송·통신 장비	방송·통신 장비
	3	기타 특수 신발	사무용 기기 부품	전화기
	4	라디오	신발류	조명기구
	5	가방(트렁크, 핸드백 등)	가구	자동차 부품
	6	**컴퓨터**	VTR	TV, 영상기기
	7	플라스틱	TV, 영상기기	가구
	8	가죽 의류	음향기기	의자
	9	조명기구	완구	사무용기기 부품
	10	여성용 의류	의자	가방(트렁크, 핸드백 등)
멕시코	1	**원유**	**원유**	**자동차**
	2	**자동차**	**자동차**	**자동차 부품**
	3	**전선, 케이블**	**TV, 영상기기**	**화물차**
	4	**TV, 영상기기**	**자동차 부품**	**컴퓨터**
	5	**자동차 부품**	**컴퓨터**	**TV, 영상기기**
	6	엔진	**전선, 케이블**	전화기
	7	**화물차**	**화물차**	**원유**
	8	**컴퓨터**	방송·통신 장비	**전선, 케이블**
	9	TV 및 라디오 부품	의자	트랙터
	10	라디오	전기 스위치, 커넥터	의료장비

*** HS 4 digit 기준이며, 파란색은 1995년, 2000년, 2015년에 모두 포함된 품목 / 자료: UN Comtrade DB**